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명상록 (아우렐리우스)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대단한 이유는 아니고, 사람들이 내용이 좋다 좋다 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어느 날 찾아 읽었다. 예전에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잠깐 한국에 올일이 있었는데, 그 때 산 책 중에 하나이다. (또 하나는 피터드러커 자기 경영 노트 였던거 같음)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
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

오래산 삶도 짧게 산 삶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현재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으며 '따라서 우리가 잃는 것도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리는 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도 과거나 미래를 잃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잃을 수 있겠는가?

비록 당신이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을 지경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아랑곳없이 여전히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것이다.

당신의 전생애를 생각해보고 괴로워하지 말라. 자기 앞에 닥칠지도 모르는 고난을 머리 속에 그려 보지 말라. 그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하나의 일에 대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감당하기 어렵고 참기 어려운가?" 하고 자문해 보라. (중략)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당신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상기하라. 그러나 이런 짐은 그것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보면 작게 보인다. (후략)

당신이 어떤 외부적인 이유로 괴로워한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외부적인 일 자체가 아니다. 그 일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한 번씩 랜덤으로 펴 보거나 예전에 접어 둔 곳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좋은 책이다. 요즘 드는 생각은 부처님의 가르침 하고도 비슷하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사회는 과학의 힘으로 지난 200년간 크게 발전했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는 로마시대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때 먼저 산 선배들의 지혜를 늘 소중히 간직하고 배워야 할 것이다.